

여수 사도 공룡발자국 등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해안·섬 지질명소 24개소 대상
경관 뛰어나고 보존가치 높아
위상 높이고 관광객 증대 효과
내달 용역 착수...12월 인증 목표

여수시가 가막만과 여자만 해안과 섬을 대상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한다. 여수시는 15일 "사도와 낭도, 추도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는 공룡발자국을 비롯한 지질학적 보존가치가 높고 경관이 우수한 가막만과 여자만의 해안 및 섬을 대상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여수시는 공원면적 1251km²와 지질명소 24개소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다음달 용역에 착수해 올 12월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육지와

바다를 포함한 공원면적이 100km²이상이어야 하며 지질명소도 20개 이상 보유하고 지질과 경관, 탐방객 접근성 등에서 기본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 학술조사와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국제 협력의 대상이 되고 관광객 증대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2년 제주도 국가지질공원으로 첫 지정된 이후 울릉도·독도 지질공원(2012년), 부산 지질공원(2013), 강원평화지역(DMZ) 지질공원(2014), 청송 지질공원(2014), 무등산권 지질공원(2014), 한탄·임진강 지질공원(2015) 등 7개의 국가지질공원이 운영 중이다. 전북 일부 지역도 최근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작업에 한창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지질공원과 차별화된 '해안 지질공원'의 브랜드화를 추진해 '국제 해양관광 중심, 여수'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수를 대표하는 천혜의 절경인 사도 전경과 사도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GS칼텍스, 사랑의 떡 나눔 봉사



GS칼텍스 여수공장 임직원들이 최근 지역 어르신들에게 삼색 백설기와 시루떡 등이 담긴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

여수지역 대표기업인 GS칼텍스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뜻깊은 사랑나눔을 펼쳤다. 15일 GS칼텍스 여수공장에 따르면 여수시 연등동에 있는 무료급식소 'GS칼텍스 사랑나눔터'에서 최근 GS칼텍스와 함께하는 사랑의 떡 나눔 봉사활동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GS칼텍스 김형순 전무를 비롯한 임직원 봉사대,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등 5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총 30여 명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사랑나눔터를 찾은 여수지역 홀몸노인 등 소외이웃 450여명에게 떡국을 대접하며 온정을 나눴다. 식사 후에는 삼색 백설기와 시루떡, 떡국용 가래떡 등도 제공했다. GS칼텍스는 지역내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원과 관심 확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특별 초청한 봉사활동을 기획했다고 한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지역 내 5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직접 떡국을 배식하고 선물을 전달하면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GS칼텍스는 '에너지로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사회공헌 슬로건 아래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빛 없는 가정경제 만들기'

여수아카데미 18일 시민강좌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초빙강연

여수시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여수순남문화회관에서 재무전문가 제윤경 강사를 초빙해 '빛 없는 가정경제 만들기'라는 주제로 여수아카데미 2월 시민교양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시민교양강좌인 이번 아카데미에는 재무전문가인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가 강사로 나서 치솟는 가계부채와 구조조정의 불안, 불안정한 노후 등 경제 삼중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지혜를 전해줄 예정이다.



돈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있는 제윤경 강사는 현재 희망살림 이사, 주빌리은행 이사, 에듀머니 대표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불행한 재테크 행복가계부'와 '돈에 밝은 아이', '부자들의 행복한 가계부' 등이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재무전문가 제윤경 대표의 쉽고 재미난 경제교육에 참여해 빛 없는 가정경제 만들기에 도움이 되는 많은 힌트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시 새 홈페이지 편리하고 풍성하네

시민 소통기능 강화...주요관광지 생생한 동영상 한눈에

여수시가 지역민의 민원 만족도 향상 등을 목표로 정보 선진화 도시 구축에 나서고 있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민선 6기 여수시의 중점 정책인 시민 소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 시민 체험형 대표홈페이지 개편사업을 모두 끝내고 지난날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새로 단장된 새 홈페이지는 PC, 태블릿PC, 스마트 폰 등과 다양한 웹브라우저(웹서비스 이용 프로그램)에서도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웹'으로 개발됐다. 또 시정알림 기능과 스마트폰 이용 불편·건의 사항 접수 기능, SNS를 연계한 소셜허브 기능과

핵심 정보를 담은 여수시 대표 블로그 구축, 시 주요 정책결정시 시민의견 수렴위한 모바일 투표기능, 시민위원회 활동상황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시민위 홈페이지 등 시민 소통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관광객들이 여수 주요관광지를 사전에 체험할 수 있도록 360도 파노라마 촬영 기능을 갖춘 최신 항공VR과 로드뷰(이동 촬영기술), 유튜브용 여수홍보물 비롯한 오동도와 해상케이블카, 여수박물관, 진남관 등의 생생한 동영상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최신 사물인터넷기술(IoT)을 도입한 NFC 등 최신 센서를 여수엑스포역과 여수공항, 또 주요 관광지에 설치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관

광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OK 통합예약포털 구축으로 시티투어와 봉황산자연휴양림, 웅천진수야영장 등 17개 공공서비스 예약·결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임재성 여수시 정보통신과장은 "새로운 시 대표 홈페이지는 시민중심 소통 강화와 시민·관광객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접목했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시 인구 또 29만명선 무너졌다

지난달 현재 28만9941명...작년 8월 이어 두번째

일자리 창출 등 대책 마련 고심

여수시 인구가 심리적 저지선인 29만명 아래로 또 떨어졌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여수시 인구는 28만9941명으로 지난해 8월 말에 이어 두번째로 29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여수·여천시·여천군 등 '3려 통합' 당시 32만 9409명에 달했던 여수시 인구는 2006년 3월 30만

명이 무너진 이후 2007년 29만5439명, 2010년 29만3488명, 2012년 29만2217명, 2014년 29만900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해 8월 말 28만9954명으로 처음 28만명 대로 추락한 뒤 인구를 늘리고자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와 산단 직원·대학생 등의 주민등록 이전 등 대책을 추진, 같은 해 10월 29만 336명으로 29만명대를 회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반짝 인구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인구증대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수시는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열악한 교육 여건과 전문병원 부재 등을 꼽고 있지만, 비슷한 규모의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물가와 집값, 수산업 침체와 국가산단 고용 한계에 따른 일자리 부족 등이 인구 감소의 큰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수시 관계자는 "조만간 부서별로 인구유입 대책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인구증가 시책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교육 여건 개선과 대형 병원 유치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 KTX 5분거리
- 광주시청 10분거리
-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 무안공항 원할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가격은 **500만원대**

풍부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선착순 **동, 호수지정**

문의

062 383-6400